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종전선언 왜 문제인가?

[발제자] 김명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 시] 2021년 11월 04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83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선언은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다. 우리가 지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도 1951년 1월 18일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평화선'이라고 불리는 인접해양 주권에 대한 선언에 근거한 것이다. 종전선언은 후대에 계속 법적인 효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 이는 정전체제에서 속전으로의 전환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 역사적 진실에 기초한 평화 만들기가 중요하다. 지금은 평화를 위한 역사 만들기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성공의 역사였지만 사실 역사교육과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역사 인식과 역사 교육이 잘못되면 잘못된 현실진단을 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잘못된 미래예측을 하게 되는 기판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한 메인보드 위에서 나오는 종전선언은 매우 위험하다.

## ◆ 종전선언의 국제적 영향

- ◆ 종전선언은 비판하면 할수록 호전선언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의 덫에 빠질 수 있다. ‘종전선언은 하나마나다, 미국이 호응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등 소극적 방어형 비판이 여러 언론과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나온다. 소극적 종전선언 거부에서 적극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적극적인 어젠다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잘못된 종전선언은 냉전의 종점이나 평화의 입구가 아니라 열전의 입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종전선언 주장의 근거는 1953년 정전체제 수립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가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속출했던 국가 안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조치들은 전시법적 조치들로서의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고 국가 배상까지 받고 있다.
- ◆ 종전선언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 평화 세리머니이므로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이다. 그러나 선언은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다. 우리가 지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도 1951년 1월 18일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평화선’이라고 불리는 인접해양 주권에 대한 선언에 근거한 것이다. 종전선언은 후대에 계속법적인 효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 이는 정전체제에서 속전으로의 전환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 ◆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한 작전이다. 인천상륙작전이 부산에서 군대를 동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실과 다르다. 일본의 후방기지에 국제연합군이 모여 있다가 인천을 수복했다. 유사시에는 이러한 군사기지가 국제연합군 사령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전쟁 역지력으로 작동한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전시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국제연합군의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평양정권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핵위협 및 핵사용에 대한 역지력 약화는 물론 한미 동맹의 균열과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 ◆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에만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 지정학적인 후방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나 점증하는 전쟁 위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정전협정은 무력화되고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해체되며 정치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확산될 것이다. 종합적인 관

점에서 정전체제 및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가 균열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

## ◆ 6.25전쟁 역사왜곡

- ◆ 6.25전쟁의 완전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은 정전체제의 기초 위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반공주의적 도그마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반-반공주의의 도그마에 빠져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 환상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서 정밀하고 신중해야 한다. 6.25전쟁의 개전 원인 및 현재의 정전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전선언으로 인해 개전 원인이 호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개전 직후 “전초병의 목숨보다 먼저 없어지는 것은 전쟁의 진실”이라는 말이 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때문에 정전 상태에서도 서로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평양에서는 6.25전쟁을 “리승만과 미국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쓰여있는 교과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교과서의 왜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다.
- ◆ 북침에서 남침유도설, 쌍방책임설까지 6.25전쟁의 개전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평양의 전쟁관을 포용하는 논리이다. 평양의 전쟁관은 동유럽 공산국가와 소련 해체 이후 국제적 지지기반을 상실했으나 약 9천만 당원을 가진 중국공산당이 최대 동조세력이 되어 중국 공산당식 해석이 영상공정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개전 원인을 얼버무린 채로 종전선언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 ◆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언급되고 있다. 정전협정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원래 국가 정상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전협정은 그 현장의 최고 사령관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전협정에 아이젠하워나 마오쩌둥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에 김일성의 사인은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의 지위로서 서명한 것이다. 마크클라크 사령관이 한국군 및 다른 참전국 군사령관들을 대표해 서명하였고 그 자리에 한국군 대표로 최덕신이 참석했다. 최덕신은 정전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하지 않은 채 월북했다.
- ◆ 정전협정이 조인된 곳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했다. 정전협정 조인장은 판문점이다. 여기에서 판문점은 북미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던 그 판문점이 아니다. 정전협정 조인장이 만들어진 곳은 조선인민군 관할이며 그 앞의 비석에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 미 제국주의자들이 항복한 의미가 있다’는 글이 적혀있다. 그곳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비석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정말로 종전선언을 하려면 정전협정의 진실을 제대로 하고 그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한

다.

- ◆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산진영이 휴지조각 같은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실질적으로 지키게 할 현실적인 힘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1953년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동된 이유이다. 정전체제는 정전협정이나 정전선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실질적인 조치에 의해 그 정전협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 ◆ 종전선언을 위한 자세

- ◆ 정전체제는 3중 봉쇄 체제의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 공산군의 재침 봉쇄. 두 번째, 급성장한 한국군의 북진 봉쇄. 세 번째, 일본의 재무장 봉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고 이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에 기반 한 것이었다.
- ◆ 정전체제를 우리가 언제까지나 갖고 갈 수는 없다. 결국은 영구평화를 위한 평화체제로 가야한다. 여기서 전제해야 할 것은 냉전이다. 정전체제라는 것은 냉전의 산물이다. 냉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다. 냉전이 평화보다는 못하지만 냉전을 부정할 경우 그대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냉전은 열전보다 나은 상태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냉전과 수구를 동일시하는 이분법적이고 단세포적인 인식 속에서 종전선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전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속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영구평화를 지향하는 것, 진정한 평화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 ◆ 그러려면 먼저 정전협정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포로송환, 유해송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유해공동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무기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그것에 기초해 영구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정전체제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곧 종전은 아니다. 정전체제를 넘어서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 그를 위해 역사적 진실에 기초한 평화 만들기가 중요하다. 지금은 평화를 위한 역사 만들기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성공의 역사였지만 사실 역사교육과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역사 인식과 역사 교육이 잘못되면 잘못된 현실진단을 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잘못된 미래예측을 하게 되는 기관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한 메인보드 위에서 나오는 종전선언은 매우 위험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